

봉건 가부장제의 여성 재현

조선 후기 열녀전¹⁾

홍인숙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 후기라는 중세 질서의 해체 시기 속에서 '열(烈)'이라는 여성 윤리가 절대화하고 있음을 열녀전(烈女傳)의 여성 재현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 그 속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조선 후기의 열녀전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서술 단락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열녀전에 입전된 여성 인물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열녀전 여성 인물의 행위 유형은 대체로 고정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열행 이전 부분의 서술 단락에서는 열녀전의 여성 인물이 열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열녀가 될 만한 강하고 의지적인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열행을 실천하는 부분의 서술 단락은 열녀전의 여성 인물이 열녀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부분으로, 남편을 희생적으로 간호하는 모습과 남편을 따라 죽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3장에서는 열녀전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열 윤리는 고도의 정

1)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논의를 발전시킨 글임을 밝힌다. 홍인숙 (2001),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신적 가치이지만,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여성 몸의 경험과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신체가 남편의 간병을 위해 사용되는 국면에서 여성의 몸은 순종하는 몸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신체적 감각과 고통이 無化되어 서술되는 양상에서 여성의 몸은 자신의 감각과 고통을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몸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사후 여성 인물은 자신의 용모를 훼손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拒食 행위를 통해 신체에 죄의식을 각인하고 있었으며, 여성 노동의 양상과 노동의 소외를 통해 여성이 노동하는 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조선 후기 열녀전이 남성 작가들이 전형적으로 여성을 재현하는 문학 장르였으며, 그 속에서 열녀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가부장 이념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창작된 열녀전의 사회적 재생산의 효과는 여성들에게 죽음을 암묵적으로 권장하여 내면화하게 만들었으며, 죽음에 대한 강박증을 갖게 하였음을 실제 여성의 유서를 통해 증명하였다.

5장에서는 조선 후기 열녀전이 가지는 여성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열녀전은 강한 남성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이다. 그러나 그러한 텍스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전 여성 문학의 영역을 재범주화하고, 고전 문학에 있어서 여성주의적인 문학 연구의 시각을 재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조직적 중심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1. 서론 - 사티, 그리고 열녀

조선에서 창작된 열녀전(烈女傳)의 열녀(烈女)는 중국 한나라 대의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의 열녀(列女)와는 다르다. 중국에서 ‘여러 여자들(列女)’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열녀는 조선에 들어와서는 ‘정절을 지킨 여자(烈女)’라는 단일하게 고정된 의미로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상층 남성들의 개인 문집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열녀전(烈女傳)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 후기 열녀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여성 인물들은 더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남편의 뒤를 따라 단호하게 죽음의 의지를 결행하고 있다. 열녀전의 여성 인물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죽음은 인도의 순장 관습(사티)을 연상시킨다. 인도의 가부장 남성들은 사티를 선

택한 인도 여성들이 정말 남편을 따라 죽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국 제국주의의 사티 폐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었다. 과연 조선의 열녀들이나 사티의 인도 여성들은 열녀전의 작가나 인도의 남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고 싶어했던 것일까?

스피박은 인도의 한 여성 민족 운동가를 하위 주체로 규정하면서 금기를 깬 그녀의 자살 과정을 통해 인도 여성의 사티를 저항적인 의미로 다시 읽어냈다.²⁾ 그렇다면 조선 후기 열녀전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죽음의 의미도 다시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여성이 없는, 지워진 여성의 자리에서 대신 말하고 있는 복화술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 여성의 몸은 어떤 역사를 각인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하여 우선, 조선 후기에 열녀전이 창작되었던 역사적 배경들을 일단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열녀전 창작의 배경 - 가문 의식과 정절 이데올로기의 강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대 전란 이후 조선 사회는 구조적으로 일대 격변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양란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는 상층 양반의 무력함과 봉건제도의 모순을 드러내게 되었고 하층 민중들은 자신들의 힘과 의식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계층 사회를 유지해왔던 조선의 중세적 질서는 그 자체가 점차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반 지배층은 봉건적 이념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문의 결속을 다지면서 역설적인 보수 반동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의 양반 지배층이 계층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강조한 것

2) 태혜숙, 「성적 주체와 제 3세계 여성 문제」, 『여/성이론』 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참조.

은 가문과 문벌의 중요성이었다.³⁾ 조선 후기에 들어 적장자 계승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확고해지고 족보가 활발하게 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⁴⁾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의 변동 과정에서 위기 의식을 가지게 된 상층 양반들 가운데, 별열은 그들의 특수한 신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방의 빈한한 사족들은 가문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가문에서 충효열(忠孝烈)의 유교 이념을 선양하는 가족 구성원이 배출된다는 일은 위태로운 신분 질서의 변화를 겪고 있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충효의 윤리가 특별하게 강조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열(烈) 윤리는 상당히 강화된 규범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성 윤리인 열 윤리가 양반 계층 내부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절 및 통제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후기'라는 시기적 구분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주었던 양대 전란의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외적의 성적 수탈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저항하여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여성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여성의 정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성의 정절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윤리적 가치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데올로기화하게 되는 과정에는 '재가녀자손금고법'과 같은 국가의 법적 강제 뿐만 아니라, 정려문을 내리는 등의 상징적 표창

3) 상층의 보수 반동화의 경향을 가문 의식 강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견해는 임치균, 『연착형 삼대록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1992)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 계녀가 등의 교훈가사가 몰락한 지방 양반 가문의 자기 결속을 위해 양산되었다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창원, 「18, 9세기 향촌사족의 가문결속과 가사의 소통」,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집문당, 1995), 양지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1998).

4) 이수봉 외 공저,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경인문화사) 참조.

과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혜택이 큰 역할을 하였다.⁵⁾

이러한 정절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은 조선 후기에 크게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열행의 기준이 협의화하게 되어 남편을 따라 자결을 한 여성들만이 열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남편의 사후 정절을 지키고 재가하지 않는 여성들이 열녀로 칭송되었고, 전란 때에는 외적의 침입이라는 직접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결한 여성들을 열녀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남편이 죽은 뒤 그 뒤를 따라서 자결하는 여성만을 열녀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결국 남편을 따라 자결하는 여성들이 조선 후기에 특히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가의 적극적인 장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⁶⁾ 두 번째는 계층적으로 하층에 해당하는 여성들에게까지도 정절 이데올로기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정절을 지켜야 하는 여성의 계층은 원칙적으로 상층에 국한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⁷⁾ 여성이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점차 하층으로도 확산되어 전사회적인 것

5) 정절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은 이옥경, 『조선시대 정절 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학과 석사논문(1985)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6)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여성들은 조선 후기에 급증하며 정조대에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장려에 의해 조장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자결한 여성에 대한 표창의 종류는 정려가 60건, 부의가 2건, 정려·부의가 2건, 복호가 2건, 정문·복호가 2건, 복호·면천이 1건, 정문·상물이 1건, 기타 2건으로 분류된다.' 고 하였다. 정세화, 최숙경, 장필화, 이배용 외, 『한국 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유형 연구』(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8, p.66). '복호는 역할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당시 과중한 부담이었던 역의 면제는 상당히 큰 보상이었으며 면천은 천인에게 쉽지 않은 신분 상승의 기회였다. 한명숙(1986), 『조선시대 유교적 여성관의 원리론적 고찰』,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1986. p.54.

7) 조선 성종대에 양반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재가녀자손금고법'은 양반 가문 여성의 재가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었다. 여기서 재가녀의 자손에게 관직에 나갈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절 이데올로기를 준수해야 할 계층이 상층에 국한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박주, 『조선시대 정표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989. pp.171~172.

이 되어갔다.⁸⁾

조선 후기에 대거 입전되고 있는 열녀전 작품들의 존재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그 창작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문 의식의 강화와 국가적 포상에 의해 장려된 정절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당대의 여성들을 잠재적인 ‘열녀’로 호명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경향 속에서 열녀전은 남편이 죽은 뒤 그를 따라 자결한 여성들을 입전할 때, 그 여성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열녀인 것으로 서술하며 남편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질서에 대단히 모범적으로 순응한 인물이었음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3. 조선 후기 열녀전과 여성의 몸

조선 후기 열녀전에서 여성의 ‘몸’을 논의하는 이유는 열이라는 개념이 고도의 정신적, 윤리적 가치이지만 그 가치가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몸’, 즉 신체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열녀전에서 여성 인물의 몸은 ‘열’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수행하는 물질적인 근거이므로, 열녀전에 나타난 여성의 몸을 살펴보는 일은 조선 후기 여성들에게 정절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각인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1) 순종하는 몸 : 여성 신체의 훼손

열녀전의 여성 인물은 병에 걸린 남편을 간호하고 보살피면서 치유의 노

8)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포상된 열녀의 신분을 보면 15세기에는 士族의 妻가 68%, 軍인, 양인, 천민의 妻가 19%에 불과했으나 16세기에는 士族의 妻가 37%, 그 외 신분이 54%였으며, 17세기에는 士族의 妻가 43%, 그 외 신분이 52%를 차지하였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烈의 윤리도 상층에서 하층으로 확산되어 조선 사회에 널리 일반화되어 갔다.’ 고 한다. 박주, 위의 논문, p.173.

력을 기울이는데, 간호와 치유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여성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직접 남편의 간병에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은 손가락을 베는 행위인 ‘단지(斷指)’와 다리살을 베어내는 ‘할고(割股)’로 대표되는 신체 훼손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한다.

경신년에 필근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더 위독해지자 윤씨가 하늘에 기도하고 산에 제사 지내며 자신의 몸으로 대신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변을 맛보고 약을 미리 맛보며 밤낮으로 자지 않았다. 남편의 숨이 끊어지려 하자 손가락을 베어 입에 피를 흘려 넣어서 사흘 간의 목숨을 늘였다.⁹⁾

병이 든 지 3년이 되니 남편은 살이 다 빠져 뼈가 드러나고 거의 목숨이 다한 것 같았다. 부인은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고 싶었지만 그 때만 해도 젓먹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세 번 축원한 부엌 칼을 꺼내 오른쪽 넙적다리 볼기 근처의 두터운 살을 베어내서 남편에게 먹였다. 며칠이 안되서 병이 깨끗이 나았다.¹⁰⁾

위 첫 번째 예문에서 남편이 병에 걸리자 여성 인물인 윤씨는 하늘과 산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남편을 대신하여 죽게 해달라는 것(乞以身代)이었다. 또한 윤씨는 남편의 약을 맛보는 것은 물론, 남편의 용태를 알기 위해 변의 맛을 보는 일(嘗矢)도 꺼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윤씨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斫指) 남편의 입에 그 피를 흘려 넣어 삼 일간의 수명을 더 연장하였다고 하였다.

9) ‘庚申弼根有病 病且革 尹氏祈天祭山 乞以身代 嘗矢嘗藥 以夜繼晝 臨絕之際 斫指灌口 用延三日之命’, 任憲晦, 〈孝烈婦孺人尹氏傳〉

10) ‘扈至三年 肉銷骨呈 幾乎垂盡 卽欲代命 而時乳哺在懷 以是末由 乃濟沐三祝于天 引磨刀割右股 近腓肉以飼之 不幾日 貞疾 霍然快去’, 朴熙典, 〈商山朴氏烈女傳〉

윤씨가 남편을 돌보며 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위의 예문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몸-身’이라는 어휘의 사용이다. 여기서 ‘몸-身’이라는 말은 여성 인물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예견되는 남편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는 것이 자신의 ‘신체’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身’이라는 어휘의 사용은 이 작품 외의 열녀전에서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¹¹⁾ 이는 여성 인물의 몸이 열행의 기반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을 구하려는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여성 인물은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자신의 몸을 훼손한다. 첫 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남편에게 흘려 넣는 경우는 흔히 발견되는 것이며, 두 번째 예문에서처럼 다리의 살을 베어내어 먹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의 신체 훼손이라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일이며 칭찬할 만한 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여성 인물의 신체 훼손이라는 행위가 남편에 대한 지극한 희생과 순종으로 의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인물들이 남편의 임종 직전에 행하고 있는 단지(斷指)나 할고(割股)는 그 행위의 결과가 남편을 살렸는가 아닌가 여부에 상관없이 칭송할 만한 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한 신체 훼손은 여성 인물의 몸이 삼종지도 가운데 ‘남편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념을 수행하는 물질적 기반이며, 남편과 아내라는 유교적인 위계 관계의 권력 관계가 표현되는 장임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이 때 여성의 몸은 구체적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몸이며, 추상적으로는 유교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순종하는 몸이다.

11) 여러 열녀전 작품에서 여성 인물이 남편 대신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願以身代, 以身代死, 求以身代, 乞以身代, 請代夫死, 卽欲代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身이라는 용어의 쓰임이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는 측면을 살필 수 있다.

2) 침묵하는 몸 : 감각과 고통의 거세

여성의 몸이 신체 훼손을 통해 ‘순종하는 몸’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실 중의 하나는 신체 훼손의 과정에서 여성 인물이 인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고통의 감각이 완전히 은폐되어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조선 후기 열녀전은 인간의 신체의 일부를 자르거나 베는 행위가 당연히 수반하게 되는 신체적인 고통의 측면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 희생적인 신체 공양을 수행하는 여성 인물들이 육체적인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태도는 결국 매우 비인간적으로 극단화된 여성 인물의 형상을 보여주기에 이른다.

이날 밤 삼경 무렵 어머니가 한참 잠이 깊이 들려고 하는데 문득 창 밖에서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촛불을 켜고 보니 열부가 칼을 쥐고 땅에 엎어져 있었다. 온몸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고, 턱 밑에는 구멍이 세 개 뚫려 있었다. 헐떡이는 소리는 그 구멍 세 개에서 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너무도 놀라 다급히 부르짖었다. “애야, 애야, 네가 정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자 열부가 갑자기 어머니를 붙잡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죽기에도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저는 바로 따라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얼굴을 한 번 뵈옵지 못해서 구차하게 잠시 미웠던 것뿐입니다. 이제 결심을 했으니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¹²⁾

이 예문에서 여성 인물은 남편의 죽음 이후 곧 따라 죽으려 했으나, 친정 모친을 한 번 보기 위해 자결을 잠시 미룬 상황이었다. 친정에 돌아와 모친을 만나고 나자, 이 여성 인물은 한밤중에 자신의 목을 세 번 찢러 자결을

12) ‘是夜向三更 母睡方熟 忽聞窗外有吼喘聲 驚起燃燭以視之 烈婦握刀仆地 渾身血淋漓 頷下有三竅 吼聲自三竅出 母大驚急呼曰 兒乎兒乎 汝果死乎 烈婦蹶起扶之曰 慈氏勿驚 女死已晚矣 夫歿之日 卽當從殉 而念草柴之橫 委在淺土 又不得一見慈顏 故苟延須臾聞耳 今則決矣 何以生爲’, 韓敬素, 〈朴烈婦傳〉

시도하는데, 숨을 몰아쉬는 것 같은 소리가 칼에 찢린 자리에서 날 정도로 심한 외상을 입게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인물은 ‘갑자기 붙잡고 일어나(蹶起扶之)’, ‘놀라지 마세요. 죽는 것도 너무 늦었습니다.(慈氏勿驚 女死已晚矣)’ 라고 말한다. 딸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놀랐을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蹶起)’는 말은 상식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여성 인물의 단호한 의지와 굳은 성품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대로 **형상화**하는 것이 지나쳐, 여성 인물을 아픔과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인간으로 서술하게 되는 것이다.

여종이 보니 부인이 왼쪽 다리를 내놓고 칼로 정강이부터 무릎까지 찢고는 큰 대접을 당겨 한 되 가량의 피를 받았다. 여종을 주며 말하기를, “내가 다리살을 베어서 공의 병을 구하고 싶지만 병이 이렇게 위급하니 너희가 다만 이 피를 갖다 드려야 내가 한이 없겠다.” 하였다. 여종이 울면서 받아 유수의 입에 흘려넣으니 서너 숟가락 정도였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부인에게 다리 상처를 싸고 함께 간병 하자고 하자 부인이, “내가 들으니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는 것이 예라고 하던데, 이제 간병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바로 가래침을 뱉었는데 색이 몹시 나빴다. …… 집안 사람이 다시 청하자 곧 말하기를, “할 말이 없구나.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공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왜 곡을 하지 않느냐?” 하였다. 집안 사람들이 그제서야 세 번 고복을 했다.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는 똑바로 누워 죽었다.¹³⁾

13) ‘夫人竭力調治者 且十許年 疾至不可爲 侍婢見夫人露左股 刀裂之自脛至膝 引大樞承之血 可一升 授侍婢曰 吾欲割股肉以救公病 病猝急如此 汝第以此血進之 我無所恨 侍婢泣受之 灌儒秀口 可三四匙 傍人勸夫人(褻)股創 而同視病 夫人曰 吾聞男子不絕於婦人之手 禮也 且視之何益 卽吐痰涎 色甚惡 …… 家人復請 卽曰 無可言者 觀汝輩狀 公已喪矣 何不舉哀 家人始三口而復 夫人聞其聲 乃正枕臥遂逝’, 成海應, 〈節婦邊夫人傳〉

이 예문은 남편의 병세가 위급하여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여성 인물이 마지막으로 구급 처방을 내려 자신의 다리를 베어 피를 바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위 예문의 여성은 다리살을 베어내려 했지만 그것을 먹일 수가 없을 만큼 남편이 위독하게 되자, 차선으로 정강이에서 다리까지를 칼로 찢어(刀裂之自脛至膝) 피를 낸다. 서술자에 따르면 남편의 상황은 워낙 위급하여 실제로 입에 들어간 것은 서너 숟가락(三四匙)뿐이라고 하였는데도, 이 여성은 다리를 찢어 큰 그릇을 당겨 한 되가 될 정도로 많은 피를 내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은 자신의 다리 상처를 간호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과다한 출혈로 인하여 죽음 직전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남편을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 인물은 심한 외상을 입게 되었지만, 그 신체적 외상으로 인하여 누웠을 아픔이나 통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진하여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하인들의 기색을 보고 남편의 죽음을 읽어내며, 고복을 할 것을 명하고 나서야 그 자신도 똑바로 누워 죽을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초연하고 절제된 태도를 가진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 인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의 육체적 기반인 ‘몸’이 고통이라는 감각에서 자유로웠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간의 몸은 그 정신적 주체가 고통을 지각하건 못하건 간에, 그 고통이 치러지는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여성 인물의 신체적 고통은 열녀전의 표면적 문맥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성 인물의 몸에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열녀전에서 여성 인물의 몸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몸’인 것이다.¹⁴⁾

14) 물론 감각이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는 몸’이라는 양상은 조선 후기 열녀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유향의 〈古列女傳〉에 등장하는 신체 훼손 및 자결을 행하는 대부분의 여성 인물들이 그러하고, 사마천의 〈史記列傳〉에 등장하여 군주에 대한 의리를 위해 신체를 훼손하거나 자결하는 예양, 섭영과 같은 인물들, 한겨

3) 죄의식이 각인된 몸 : 용모 훼손과 거식(拒食)

열녀전에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성 인물들이 그 슬픔을 표현하는 관습적인 방식은 용모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여성으로써의 치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세수나 빗질도 하지 않는다. 풀어헤친 머리에 때묻은 얼굴(蓬首垢面)을 하고, 해지고 떨어진 옷을 입고서 그것을 빨거나 갈아입지 않는다.

관이 있는 곳에서 자리를 깔지 않고 짚자리에 있었는데, 온기없이 차게 지내다가 병이 들기에 이르렀으나 바꾸지 않았다.¹⁵⁾

일찍이 한 방에 따로 거처하면서 발을 뜰 아래로 내려닫지 않았다.¹⁶⁾

빗질도 하지 않고, 옷은 빨아 입지 않고, 찢어지면 찢어지는 대로 기워 입어서 남루하고 더러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부를 똑바로 쳐다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치마는 짚끈으로 묶고, 걸을 때는 언제나 곱사병을 앓는 것처럼 몸을 구부렸다.¹⁷⁾

그러면 남편을 열심히 간호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한 여성 인물들이 왜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죄의식을 가지는가. 다음 예문에서 여성 인물의 말을 직접 참고하기로 한다.

올에 몸으로 얼음을 녹여 모친에게 고기를 봉양한 왕상 등의 효자, 서사 무가에 등장하는 바리공주나 청정 각시 등은 모두 조선 후기의 열녀전이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신체는 혹독한 고통과 시련 속에 놓이게 되는데도 그것을 감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이는 충, 효, 열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이나 창작 관습 하에 놓여 있는 서사물 일반이 인간의 신체적인 감각과 기능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5) ‘几筵之所 不席而苦 不溫而冷 以至成病 而不變改’, 柳麟錫, 〈烈婦楊氏傳〉

16) ‘嘗別處一室 足不下庭’, 徐有渠, 〈金朴二烈婦傳〉

17) ‘不櫛不口 衣不濯濯 隨裂隨補 藍縷汗穢 人不欲正視 帷裳束以藁索 行必曲身如癡病狀’, 田愚, 〈節婦金氏傳〉

결국 남편이 죽었는데 이때 유씨의 나이는 이십오 세였다. 남편이 일찍 죽은 것을 슬퍼하며 곡을 하다가 기절하고는 한참 뒤에 깨어났다. 눈물을 거두고 용모를 가다듬더니 말하기를, “남편이 죽은 것은 저의 박명함 때문입니다.” 하였다.¹⁸⁾

이 예문에서 열녀 유씨는 남편이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기절했다가 깨어나 침착을 되찾고는 남편의 죽음을 ‘자신의 박명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유씨가 말하는 바, 남편이 죽은 까닭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박명함’이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명(薄命)’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박한 운명, 또는 좋지 못한 팔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남편의 때 이른 죽음 앞에서 유씨가 생각하였을 상황 인식을 그 자신의 말로 추론해본다면, 자신의 운명과 팔자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남들보다 이른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의 요절이 곧 자신의 불행한 운명 탓이라는 것이다.¹⁹⁾

이렇게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박명함’이라는 말로 내면화한 뒤 여성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수감되고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가책한다. 이 때 열녀전의 여성 인물의 몸은 용모를 훼손함으로써 그 여성 인물이 가지고 있는 불행한 운명(薄命)과 죄의식을 가시화하는 공간이 된다. 자기의 몸을 거적자리나 짚자리에 얹드리게 하고, 고립적인 장소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머리를 풀고 몸을 씻지 않는 행위는 모두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는 일련의 상징적인 행위들이다.

조선 후기 열녀전에서 여성 인물이 자신의 죄책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18) ‘夫竟死 時劉氏年方二十五 痛夫早死 哭而絕 良久乃蘇 遂收淚 斂容而言曰 吾夫之死 由妾薄命’, 朴胤源, 《劉烈婦傳》

19) ‘薄命하다’라는 말은 다른 열녀전들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다. ‘孀人忽自慰曰 吾誤矣 如吾薄命 世或有之 姑留於世 可立嗣以歸 有辭於亡夫如吾薄命 世或有之’, 趙虎然, 《烈婦孫孀人傳》, ‘方其遺孩之生也 爲保亡夫一脉 而審量其棄死之非義 及其遺孩之不保則自顧薄命於夫家無益矣’, 趙虎然, 《烈婦孫孀人傳》, ‘穹壤薄命 罪盈首窮’, 黃胤錫, 《烈婦李氏傳》

고 있는 또 다른 행위 양식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거식 행위(拒食行爲)는 남편의 죽음의 원인을 자신의 박명 탓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죄의식의 소산으로 나오는 행동 양식의 하나인 것이다. 열녀전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거식 행위(拒食行爲)는 슬픔이라는 정서적 차원에서 단순하게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이틀의 단기간에 ‘차마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직접적인 슬픔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의지적인 행위라는 측면이 강하다.²⁰⁾ 결국 그것은 강한 자기 억제와 자기 통제를 수반하는 것이며,²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스스로 봉쇄하는 행위이다.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여성들은 죄인의 위치로 스스로의 처지를 낮추어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며 스스로를 방안의 공간으로 고립시켰으며, 동시에 의지적으로 자신의 식욕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남편의 죽음을 자신의 박명함 탓으로 생각하는 근원적인 죄의식이 거식행위의 근거에 깔려있었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 때 여성의 몸은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압하고 그 자리에 용모 훼손과 거식 행위를 통해 죄의식을 각인해 넣는 하나의 장이 된다.

20) 음식 거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내용에는 손가락을 잘라 다시는 먹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다거나, 혀를 깨물어 피를 내면서 먹지 않으려 하는 다음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仍折指以示誓 不復食之意’, 任憲晦, 《烈婦朱氏傳》, ‘忽病臥 勺水不入口 衆苦勸 則辭舌出血 誓卻藥餌’, 田愚, 《金烈婦傳》

21)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가 정신 질환의 차원이나 병적인 양상으로 발전되면 그것을 拒食症이라고 하는데, 거식증에 대한 다음의 언급은 열녀들의 거식 행위가 의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에도 일정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거식증은 원래 의미로는 식욕이 없다는 뜻이지만 거식증 환자는 스스로 엄격히 통제하는 식욕을 가지고 있다. …… 거식증은 자신의 의지력과 욕구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단언하는 여성의 질병이다.’ Harriet Fraad, “The Female Body as a Site of Gender and Class Transition”, *Rethinking Marxism*, (Fall&Winter, 1990), pp.79~99. 여기서는 임상훈 역, 「신경성 거식증:성과 계급 전이의 장소로서의 여성 육체」, 『문화과학』가을호, 1993, pp.185~187을 참고하였다.

4) 노동하는 몸 : 여성 노동의 양상과 소외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었던 가사 노동은 조선 후기 열녀전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열녀전에서는 특히 남편의 죽음 이후에 여성 인물의 신체 노동 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양상은 상장례 집전, 시부모 봉양, 육아 관련으로 나뉜다.

시부모가 올면서 달래기를, “네가 죽으면 우리와 네 아이들이 모두 추위에 떨고 추위에 주러 죽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네 남편의 뜻이겠느냐?” 하였다. 김씨가 감동하고 깨달아 곧바로 먹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더욱 살림에 힘을 써 낮이면 노동을 하고 밤이면 베를 짜다.²²⁾

위 예문을 보면 노동의 양상이 결국 물긴고 방아찡는 등의 일이나 베를 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여성 인물은 집안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수입은 모두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투입되는 것이다. 사실 전통 사회에서 상례를 집전하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성의 전적인 노동을 필요로 했던 분야였다. 우선 남편의 상례를 집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의를 짓는 것과 제수 음식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의식(衣食)을 담당했던 여성들의 고유한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시부모를 모시는 일이나 자녀의 양육 역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은 좋은 음식과 따뜻한 옷을 마련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장례를 치른다거나 시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모두 실질적인 경제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따라서 실제로 여성들이 담당했던 여성 노동의 범위는 단순히 가사를 돌보는 일이 아니었다. 많은 열녀들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舅姑泣誓曰 汝死則吾與汝子 皆將凍餓 此豈汝夫志耶 金氏感悟卽食 自是益治產業 晝則操作 夜則織布’, 金澤榮, 〈烈女玄錫祺妻金氏傳〉

슬픔을 억누르고 고통을 참으며 오로지 시부모의 말을 듣고 부도를 지키며 평소처럼 집안 일을 맡아했다. 집이 본래 가난했는데 질병과 장례 빛이 또 산더미 같았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후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다. 윤씨가 낮에는 베를 짜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여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빛을 갚았으며, 시부모의 계절마다의 옷도 손수 마련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시동생을 장가 보내서 날마다 아들 낳기를 축원했다.²³⁾

이 열녀전에서 윤씨는 남편이 죽기 전에 시부모와 시동생을 보살펴 줄 것을 거듭 부탁하자, 자신의 딸이 열 살되는 해에 따라 죽겠다는 약속을 해 두었기 때문에 곧바로 자결하지 않았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자결을 지연시킨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간절하게 부모와 동생을 부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집이 원래 가난한데(家本窶) 몇 년 동안 남편의 간병에 든 비용과 상장례 집전으로 '빛 또한 산더미만한(債又如山)' 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유언을 한 뜻은 아내가 따라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거나, 집안 식구들이 의지할 사람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는 순수한 의도였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본의와 관계 없이, 지연된 자결까지의 기간은 윤씨에게는 고된 노동의 시간이 되고 말았다. 베를 짜고 샅바느질을 하는 전형적인 여성 노동의 전적인 투입으로 시부모는 철마다 손으로 지은 옷을 입고 시동생은 결혼할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곧 자결하게 되는 여성 인물의 노동의 결과로 집안의 채무까지 상환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보여주는 '집이 본래 가난하고, 남편의 간병에 든 비용과 상장례 비용으로 빛이 쌓여있는' 상황이 이 작품에서만 두드러지는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열녀전의 여러 여성 인물들은 그러한 가난과 궁핍 속에서 자신의 신

23) '抑哀忍痛 一聽舅姑之言 執婦道 幹家務如平時 家本窶因疾病喪葬 債又如山 舅於哭子後 不顧產業 而尹氏晝織夜針 極力拮据盡報其債 舅姑歲月之製亦無不手辦 又能成娶其叔 日祝其生男', 任憲晦,〈孝烈婦孺人尹氏傳〉

체 노동으로 시부모의 봉양을 책임지고 시집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은 결과적으로 노동의 주체였던 여성 자신을 소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앞 절의 용모 훼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성 인물들은 남편의 사후 머리를 풀고 몸을 씻지 않으며 떨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의식하였다. 여성들은 자결하기 전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돌보지 않으며 방기하지만, 그 유예된 자결까지의 시간 동안 죽은 남편과 시부모를 비롯하여 시집의 가문을 위해서 육체 노동을 아끼지 않는다.

열녀전에서 여성의 노동은 가내 노동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시집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까지도 이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은 가정의 위치가 공백이 되어버린 가부장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노동 충원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의 과정과 결과에서 노동의 주체인 여성 자신의 몸은 소외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열녀전에서 여성의 노동은 여성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계속되지만 노동의 결과물은 시부모를 비롯한 시집 가문으로 온전히 귀속되며, 노동의 과정과 결과에서 노동하는 여성의 몸이 존중된다거나 배려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여성의 몸은 소외된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수동적인 주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4. 가부장적 복화술과 여성의 목소리

열녀전의 여성 인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죽음을 선택하며, 두려움 없는 죽음을 통해 남편을 위한 절대적인 순종을 실천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죽음의 선택 뒤에는 당대의 정신적인 환경이나 이데올로기적인 개입 여부의 문제가 은폐되어 있었다. 정절

을 지킨 여성에게 국가적인 포상이 주는 실질적 혜택은 당대 여성들에게 수절과 자결을 강요하고 장려하는 강력한 요인이었고, 그것은 가문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성의 자결은 사실 무언의 권장조항이 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⁴⁾

조선 후기 열녀전은 이러한 일련의 중세적 질서 회복과 가부장제 강화를 위한 여성 통제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열녀전(烈女傳)의 상위 문화 양식인 전(傳)의 형식적인 특성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전(傳)은 문체적인 개인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그 인물의 생애에 대한 작자의 견해를 덧붙이는 정통 한문학 장르로, 인간의 역사적 삶을 일정한 가치 태도 하에 집약적으로 재현하는 기술 양식이다. 따라서 전(傳)에는 기본적으로 작가의 역사적, 계급적 인식이 강하게 개입되고, 그것이 산출된 시대의 당대적인 의식이 생생하게 반영되며,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교술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다시 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전(傳)에서 어떤 여성 인물을 입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그 자체에 여성의 재현에 대한 강한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작가층과 사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렇게 제시된 여성상이 다시 사회적으로 재생산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여성 인물 유형의 대표격을 이루는 것이 열녀(烈女)이며, 그러한 인물 유형을 전형적으로 성립시키고 있는 것이 열녀전(烈女傳)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조선의 여성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여성상이며, 거의 유일한 전형적 재현양상(stereotype)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 ‘열녀상’이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스테레오 타입은 특정 집단의 어떤 속성을 선택해서 그것이 마치 그 집단의 본질인 것처럼 만들 때 생겨난다고 한다.²⁵⁾ 가부장적

24) 그런 면에서 조선 후기 열녀전의 문면에서 잦은 빈도로 등장하는 ‘집안 식구들의 감시와 만류’라는 모티프는 여성 인물의 자결을 온 가문이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성들에게 순종과 정절이라는 속성을 부여했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이 때 그러한 남성 중심적 가치 기준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있는 여성으로 '열녀(烈女)'라는 스테레오 타입은 전(傳)이라는 선전성과 교술성이 강한 문학 형식을 통해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열녀전을 통해 스테레오 타입화된 여성 재현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억압과 지배 구조에 깊이 연루되어 행동을 규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조선 후기 대거 등장하는 열녀전들을 통해 구성된 스테레오 타입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다른 여성들에게 강화된 억압의 형태로 경험되어 그들의 행동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 문자 그대로 '따라 죽기(從死)'라는 행위 유형을 보여주는 열녀들이 스테레오 타입화되고 있는 것은 '순종적이며 정절을 지키는 여성'이라는 규범적 여성상이 죽음이라는 극한적 선택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열녀들의 죽음의 의미는 '죽도록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며, '죽어서 정절을 영원히 보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혐의화한 열행 범주가 지시하는 죽음은 타자화된 정절 개념이 보여주는 비인간적인 선택이다. 열녀전의 여성 인물은 남편의 죽음 이후의 삶의 어느 구비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실절(失節)의 가능성을 자살이라는 방식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그것은 정절을 잃을 수도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애초에 차단함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순종의 의미이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순종의 증거로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봉인하여 정절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열녀전은 남성 작가들이 전형적으로 여성을 재현하는 문학 장르였으며, 이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여성 인물의 입을 통하여 말하도록 하였다. 결국 열녀전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성들의 언어

25) 수잔나 D. 윌터스, 김현미 외 공역,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또하나의 문화』, 1999), pp.61~63.

는 조선 후기의 보수화, 경직화된 가부장제가 대신 발화하고 있는 복화술사의 그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열녀전에서 죽음을 홀로 대면해야 하는 순간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열녀가 직접 남긴 유서를 보면, 입체감 없이 납작하게 표본화된 스테레오 타입의 경직된 목소리가 아닌, 피와 살이 도는 하나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서흥 김씨(瑞興金氏)라는 열녀가 직접 남긴 한글 유서²⁶⁾이다.

- ① 혼심코 텃업서라 내의 일신 이십년이 세상의 역녀가티 머무던일 일장춘몽 아니던가 스라 무의 내의 잔명 미거홀 마암이오나 대의를 쫓스오니 혼심키는 그지 업내 애고애고 원통해라 빙옥가튼 내의 심경 어나 뉘가 아라쥬며 산해가티 쓰인 심회 뉘을 잡고 터회할꼬 구원의나 바래볼가 애고애고 원통해라 이때가 어나 때고 줌춘이 되였서라 압산의 꽃과 풀은 여구의 맹동하내 어이다 내의 일신 혼심하고 적막하고 애가애가 포홀이내 포홀이내²⁷⁾
- ② 애고애고 답답해라 로텐이 무령턴가 애고애고 원통해라 일월이 갈사록 통분하고 원통하야 엇디 살꼬 가지가지 유한이오 광대한 너른 텃디 룬을 뜨고 어이 보며 귀을 두고 어이 듯노 룬도 감고 귀도 먹고 등신이 안되거던 달은 거시 무엇잇쇼 죽음이 상책이오 슬푸고 유한이내²⁸⁾
- ③ 아바아바 엇디 하야 여즈 도리를 반분이나 호오릿가 세상스 듯보지 말미 상책이오니 불측한 이 여숙을 생각디 마옵쇼셔 첩첩이 셔린 정곡 엇디 다 알외릿가 통곡통곡 혼심혼심 스라 쓸 곳 업산 저의 잔명 대의를 쫓스오니 아바아바 그리 아옵쇼셔²⁹⁾

26) 서흥 김씨의 유서는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4편 『從容錄』에 실려 있는데, 『종용록』에는 그 외에도 그 유서의 漢譯文, 김씨의 열행을 칭송하는 여러 문사들의 詩文이 실려있다.

27) 壁上書 ② 全文.

28) '김부인유한서' 중 일부.

29) '아바님전 상사리' 중 일부.

①에서 김씨는 자결을 결심하고 나서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단정하고 엄숙한 열녀전의 인물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글에서 드러나는 김씨의 모습에서는 대의를 따르는 사람의 **당당한** 모습이라기 보다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애통해 하는 면모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반복되는 ‘애고애고 원통해라’의 구절은 자신의 박명 때문에 요절했다고 생각하는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의 의미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도 곧 그 뒤를 따라야 하는 운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 겹쳐지며 전달되고 있다. ‘이때가 어나 때고 중춘이 되엇서라 압산의 꽃과 풀은 여구의 맹동하내’ 하는 부분의 진술에서는 자신의 처지와 외부세계, 계절의 아름다움이 대비되면서, 김씨가 처해 있는 **상황의** 처절함이 더욱 절실하게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사려 무의 내의 잔명 대의를 쫓사오니’의 구절은, 조선 후기의 열녀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의연한 모습으로 열과 정절이라는 대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열녀의 목소리로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힘겹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 판단에 따른 결과가 대의를 쫓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인식일 뿐이다.³⁰⁾

②에서 보이고 있는 ‘애고애고 답답해라’, ‘애고애고 원통해라’, ‘가지가지 유한이오’ 등의 탄식과 반복의 점층적 표현은 결국 ‘눈도 감고 귀도 먹은 등신과 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에 도달한다. 자신이 삶을 계속하더라도 그 삶이 ‘등신과 다른 것이 없’게 이루어질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김씨의 상황에서는 차라리 ‘죽음이 상책’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김씨가 죽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박 관념이다.³¹⁾ 남편을 앞세우고도 살아 남아 있는 부인은 ‘서방 잡아먹은 여자’

30) 황재문, 위의 글, p.163에서도 같은 해석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대의를 따른다는 말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대의를 따라야 하므로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당위적인 실천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결과가 대의를 따르는 것이 되리라는 다소간 **상황론적**인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손가락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실절(失節)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죽도록 순종하지 못한 것이니 삼종(三從)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 의식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김씨가 되풀이하여 생각해도 돌아오는 결론의 자리는 ‘죽어야 한다’는 당위의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론은 ③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은 친정의 부친 앞으로 쓴 유서이며 그 속에서 김씨는 ‘첩첩이 셔린 정곡을 다 아뿔 수가 없다’고 하면서, 친정 부친이라는 혈육 앞에서 쏟아지려고 하는 자신의 심정을 나름대로 검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유서라는 글이 자신이 지정한 수신자에게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는 형식의 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검열 속에서도 김씨는 자신의 남은 목숨이 ‘스라 쓸 곳’이 없기 때문에 대의를 따르기로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 말의 뜻은 자결의 선택이라는 것이 다분히 외적으로 형성된 맥락 속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며, 자신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자결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을 행간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세상을 떠나던 날 남편의 상을 마친 뒤에 죽기 위해 날짜를 물어 보며,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시간을 확인한다. 그리고 열녀전을 읽으며 흐느껴 울었다고 하며(嗚咽流涕), 그날 밤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숨을

31) 여성이 직접 언문으로 남긴 유서에는 죽음에 대해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압박감이 보다 생생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재령 이씨가 남긴 유서에서도 ‘한날 죽을 맹서난 고치기 어렵고, 이 맹서를 고치면 지하에 가 가장 대할 낫지 없을 닷하여, 내 효심을 다 보지 못하고 도라간다. 머나리 태기 있는 듯하니 남녀간 보고 죽을 거시대, 내 마음 일시 급하여 질박하여 마지 못하여 죽는다’라고 하여, 죽음을 앞두고 자식의 효성과 머느리의 태기에 대하여 배려와 염려 등의 다양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재령 이씨의 유서에서는 특히 ‘한날 죽기를 맹세한 것’이라는 대의 명분의 표현과 ‘마지못하여 죽노라’라는 죽음에 내몰린 듯한 심경의 표현이 모순적으로 병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오히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의 복잡한 심경과 압박감, 두려움 등이 보다 생생하고 개연성있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가원, 위의 책, p.973.

거두었다고 한다. 그의 사인은 병이나 독이 아니라 ‘기결(氣結)’이었다고 한다. 김씨의 기를 멈추게 한 것은 스스로 끊임없이 열녀전(烈女傳) 등을 통해 내면화한 죽음에 대한 강박적인 의식이었을 것이다. 남편이 죽은 여성들에게 자결은 암묵적으로 권려되었고 나아가 그것은 여성들에게 죽음에 대한 강박 관념을 심어주기에 이르렀다. 김씨의 경우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예민하게 의식하였던 것이며, 결국 스스로의 기를 막아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김씨의 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죽음을 앞둔 여성의 내면은 남성 작가들이 지은 열녀전에서 보았던 **당당하고** 의연한 여성 인물들의 태도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진실을 전해준다. 그 속에는 열녀전의 남성 작가가 여성 인물들에게서 의도적으로 삭제해왔던 후회와 안타까움, 망설임과 주저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그것은 조선 후기 열녀전이 기술하는 것처럼 여성들이 선천적으로 완벽한 열녀였다는 문법을 깨뜨리며, 나아가 열녀라는 기호의 경직된 의미를 깨뜨리는 것이다.

5. 결론 - 조선 후기 열녀전의 여성 문학적 의의

조선 후기 열녀전은 엄밀히 말하여 여성 문학이라는 범주 안에 귀속되기 어려운 텍스트이다. 보편적으로 ‘여성 문학’이라는 영역을 정의하는 기준은 ① 문학 텍스트의 창작자가 여성인 경우, ② 문학 텍스트의 주된 **향유층**이 여성인 경우, ③ 텍스트 자체에 여성 중심적인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열녀전은 위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적 기준에서의 ‘여성 문학’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열녀전 작품들을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는 의의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고전 문학 분야에서의 ‘여성 문학 재범주화’라는

차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전 문학 분야에서 여성 문학이라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여성 작가에 의해 쓰여진 작품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그러나 전통 시대 여성들은 언어와 문자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된 존재였기 때문에 고전 작품이 산출되던 시기의 문학 활동에서 적극적인 창작이나 향유의 계층일 수는 없었다. 또한 여성이 창작한 작품이라고 해서 여성적인 문제 의식이나 여성적인 특질을 작품이 반드시 담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³³⁾ 다시 말해 여성이 창작한 문학 작품 안에서 여성 문학이라는 범주를 보증하는 독자적인 특질이 대상 작품에 판별 기준으로 선명하게 존재하는가 하는 미학적 물음에 충분한 해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³⁴⁾

따라서 아직 설정되지 않은 ‘여성 문학’이라는 잠정적인 범주에 대하여 ‘여성 문학의 재범주화’라는 연구사적 과제를 앞두고 조선 후기 열녀전의 의의를 설명해 볼 수 있게 된다. 조선 후기 열녀전은 남성 작가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여성 독자나 향유층을 상대로 하지 않았고 여성적인 의식을 담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열녀전을 여성주의적으로 조명해 볼 수

32) 이혜순 외 공저(1999),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이 연구에서는 고전 문학에서의 여성 작가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면밀한 고증을 하는 동시에, 여성 창작자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33) 신경숙은 고전 시가 분야에서 여성 작가와 작품을 연구한 연구사를 검토하면서 작가의 성별과 문학 작품의 성별에 대하여 문제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여성작가의 작품을 여성성하고만 결합시켜 생각하려는 현재 우리의 매우 일반적인 연구 경향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 남성 작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성, 남성성의 본질일 수만은 없다. 한 개인 안에 있는 양성적 측면을 생각할 때, 작가와 여성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못지않게 이를 어떻게 분리시켜 볼 것인가도 지난한 문제라고 본다.’, 신경숙, 「고전시가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창간호, 2000, p.310.

34)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분야로 일컬어졌던 학문적 논, 설을 주로 남긴 임윤지당의 작품이나, 학문과 사회적 명예라는 공적인 자아 실현의 욕망을 강하게 드러냈던 강정일당의 경우는 작가의 성별이 여성이기는 하지만 여성 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작품 자체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있는 지점은 어떤 것인가. 다음에 제시하는 인용문은 다소 길지만 문학 작품을 여성주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기에 참고하려고 한다.

작품이 영원히 고정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술적 경험이란 그 경험의 맥락 안에서 작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 중요성과 정도를 달리하면서 하나의 경험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심미적 경험의 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맥락'이 그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변경시킨다. 작품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 예술을 보증하는 독자적 특질이 대상 내에 판명하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여성'이라는 형용사를 단 예술 작품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그 예술적 경험의 맥락에서 여성 성별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될 때 우리는 그 작품을 여성적, 혹은 여성주의적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주의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맥락에서 하나의 작품을 여성 예술로서 고려할 수 있으며 여성주의적 가치는 그 작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혹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그 작품이 언제나 여성 예술인 것은 아니다. 페미니즘 미학이 미학의 대안으로서 모든 예술 체계를 교정하고 나아가 예술을 평가하는 단일한 규범으로 제시된다면 그러한 미학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여성성이나 여성주의가 예술을 가치있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페미니즘 미학은 성별이 여전히 문제적인 곳에서 예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³⁵⁾

여성 문학을 보증하는 독자적 특질이 작품 안에 판명한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정된 연구 대상으로서 '고전여성문학'이라는 실체를 상징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 된다. 여성 문학의 범주는 고정된 경계를 가진 것으로

35) 김주현(2000), 「페미니즘 미학과 작품의 성별 정체성」, 한국여성철학회 겨울워크샵, 발표요지.

로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문학 작품이 읽히고 수용되는 예술적 경험의 맥락과 과정에서 여성 성별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작품은 늘 유동하는 여성 문학의 범주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 문학의 범주를 유동하는 것으로 보고, 여성 문학의 범주 내로 편입시키는 기준을 '성별이 문제적인 지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설정한다면, 조선 후기 열녀전은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학적 텍스트가 된다. 조선 후기 열녀전이 보여주는 여성에 대한 유형적인 형상화와 여성의 내면 서술 배제는 문학적인 창작과 수용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별을 주요한 고려의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열녀전은 고전 여성 문학의 재범주화에 있어서 새롭게 여성 문학을 조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점을 제공해주는 텍스트라고 하겠다.

■ 필자 : 이화여대 대학원 졸업

Abstract

A study on the biographies of exemplary virtuous women(烈女傳) in the later Choseon period

Hong In-Sook

In this dissertation I intend to investigate female characters of biographies of exemplary virtuous women(烈女傳) from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in the later Choseon period, which witnessed the gradual disintegration of medieval ideologies and the medieval order. I will also attempt to show how the concept of exemplary female virtue(烈) embodied the women of this period in these biographies dedicated to exemplary women.

Chapter 2 deals with the typical literary structure of classical biographies. Especially in the part dedicated to their achievements, the virtuous conduct that earned them a biography for exemplary virtue is examined, divided into their achievements before their virtuous conduct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virtuous conduct itself. In the narration parts that deal with achievements, fixed descriptive paragraphs can be found. Furthermore, in the course of description, the female characters show fixed behavioral types in general. Their exemplary personalities and conduct before their exemplary virtuous conduct are naturally connected to their later self-sacrificial virtuous conduct.

Chapter 3 explores how female bodies are meaningfully signified in narrations of biographies of women of exemplary virtue. This is because although the concept of exemplary female virtue is a highly spiritual value, it is realized by the experiences and realizations of the female body. Female bodies are described as bodies of submission when they

devote themselves to nursing their husbands. From the aspect of negating female physical senses and pain, their bodies are also shown as taciturn bodies when they do not express female physical senses and bodily pains. It is also shown that when women survive their husbands, they neglect to take care of their appearances and refuse to eat. It can be said that in doing so, they wish to engrave their sense of guilt. Also female bodies are considered as laboring bodies in aspects of working women and alienation from work. Female characters are ideally embodied through carrying out the exemplary female virtue when they sacrifice themselves by death, completely eliminating material physicality.

Chapter 4 intends to clarify the meaning of exemplary female virtue as manifested in the biographies of women of exemplary virtue through an analysis of the female body. While the disintegration of medievalism continued during this period, the concept of exemplary female virtue was adversely being intensified. In this atmosphere, the literary style of the traditional biography(傳) mythologized women as highly moral, by taking advantage of the educational nature and typical structure of the biography. Therefore, the effect of the social reproduction of the biographies of women of exemplary virtue that were manufactured in this way, was to tacitly exhort other women towards death and to internalize it. This made women acquire an obsession with death, as is testified in reality by the wills of women from this period.

Chapter 5 discusses on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biographies of women of exemplary virtue of later Choseon period. They are highly male-centered, but they also make it possible to recategorize classical feminine literature and redefine the viewpoints involving feminist studies of classical literature.

